

주일 예배 순서

(창조절 첫째 주일)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인도 : 지인성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그대로)

전 주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인 도 자

송 영 성 가 대

*영 광 송 3장(통2)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1장(통46) 다 같 이

*시편교독 84편 다 같 이

인 도 :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회 중 :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인 도 :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회 중 :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인 도 :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회 중 :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 도 :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회 중 :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인 도 :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회 중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인 도 :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함께 :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찬 송 218장(통369) 다 같 이

기 도 김경수 장로

*성경봉독 1부 : 권민정 집사·이상임 집사
2부 : 김기정 집사/허유하 집사

누가복음 10:38~42

³⁸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³⁹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⁴⁰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⁴¹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⁴²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역개정, p. 109)

디모데전서 6:17~19

¹⁷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 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¹⁸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¹⁹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개역개정, p. 340)

봉독자 :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응 답 송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찬 양 1부 : 찬양과 기도로(Mary McDonald) 샤론 성가대
2부 : 목마른 사슴(이현철) 예 님 성가대

말 씀 “좋은 편을 택하라” 지인성 목사

침 목 다 같 이

헌금과 찬송 324장(통360) 다 같 이

기 도 목 사

성도의 교제 다 같 이

*주의기도 다 같 이

자녀주일 말씀

오늘 말씀은 그릇된 생각에 묶여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을 묶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두 유형의 신앙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유대인 장로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어떤 백부장이 보낸 ‘몇 명의 유대인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께서 이런 일(백부장의 종을 살려주는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백부장이 가진 사랑의 마음과 백부장이 한 일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었어야 할 사람들은 백부장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장로들 자신들임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백부장은 식민 지배를 하는 이방인 군인, 식민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는 올바른 신앙의 마음과 그 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도 깜짝 놀랄만한 더욱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그 종의 병명이 ‘중풍병’이었습니 다. ‘중풍병’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무엇인가에 묶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서 다시 말합니다. “다만, 말씀(로고스)만 해 주셔서 제 종을 낮게 해주십시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메시야가 오셔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기만 하는 ‘그릇된 신앙에 묶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유대인 장로들, 바로 그들이 중풍병자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유대인 장로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자신의 중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직접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백부장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에 놀라셨고, 말씀만으로 그와 그의 종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일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행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릇된 영에서 풀려나게 되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응경 목사

선교후원기관